만유법계 가득한 부처님의 진리

지극한 원력 세워 실천합시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부처님께서는 탄생게서 "삼계는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안락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력을 지닌 삶은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원의 현신은 삼계 중생들을 모두 안락케 하리라는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원력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뜻깊은 날, 세상의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동국대학교가 삼보의 이름으로 더욱 빛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눈 맑으면 세상 맑아진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계 평화와 자유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직위고하의 차별, 임금과 신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세계를 말한다. 세속의 종교는 차별이 있으나 부처님 경계에서는 대자유와 평화만 있을 뿐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빛을 주지만 태양은 주었다는 생각 없이 빛을 발한다. 자유세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의 기회, 정의로운 사람의 희망 역시 정의롭고 함구적인 평화였다. 모든 인류가 평화와 우애와 정의에 대한 자비로운 공통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이 곧 진여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인간의 마음이란 그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고 때가 끼지 않은 진여의 理體와 한량없는 德用까지도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생, 불멸하고 고요하니 이를 自性 淸淨 涅槃이라 합니다. 붓다께서는 인간 무명의 장벽을 뚫고 위없이 바르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 놀라움을 사바세계 만 중생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佛向上(부처로 가는길)임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내리는 가르침과 거룩한 축복을 존귀한 임 오심의 인연으로 현세의 극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한 구름에서 같은 비를 내리지만 약초와 나무들은 근기에 따라 제각기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법화경에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는 봄비와 같이 대지를 촉촉이 적시듯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쁘게만 살았지 내 마음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정성을 다해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근기를 올린다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봄비와 같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독심 내려놓고 초심으로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그 날, 지리산 자락에 봄비가 슬피 울던 날, 무상한 둥지 다툼에 인왕새 의왕에 떨어졌네. 오! 개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눈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귀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음수리 사바하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전생을 알고저 하면 지금의 삶이 전생이고
욕지래생사 금생작자시(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내생을 알고저 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일세.
탐 · 진 · 치 내려놓고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나누는 마음으로 등불 밝히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중생의 깨달음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오신 광명의 날입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밝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일체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마음으로 무명을 떨치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받들어 온 누리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부처님께 예경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며 이웃을 위해 보리심을 행하도록 합시다.

깨달음의 노래 함께 부르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青山依舊映世上 鶴去人亡石逕迷
獨立傷心思故跡 疑是身空物亦空

청산은 예전처럼 세상에 비치는데, 학은 떠나 사람도 없이 돌오솔길만이 희미하네. 상심한 채 홀로 서서 옛 자취를 생각하니 내 몸도 공하고 만물도 다 공한 듯하네. 우리 불자들의 서원과 발원으로 이 사바예토가 고통이 없는 참된 불국정토가 되도록 노력정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부처님이 오신다면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가 보살성문이며 부처님이니 참다운 깨달음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진리의 합창곡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합니다.

부처님은 온 법계 가득 차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佛身充滿於法界 불심충만어법계
普現一切衆生前 보현일절중생전
隨緣赴感靡不周 수연부감미불주
而恒處此菩提座 이항처자보리좌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다달아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항상 보리좌에 계시네

사바에 진리 대광명 빛나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日白塵心白 風淸世慮淸
修行無別意 夜夜窓前白
태양이 밝으니 마음도 밝아지고
바람이 맑으니 생각도 맑아지네
수행하는 별다른 뜻은 없으니 밤마다 창문 앞에 밝게 비치리라

지옥 중생으로부터 천신, 생명 있는 중생과 보살 성문이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니 사바에 무명 번뇌가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빛을 발하네. 청정국토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천 길 낭떠러지 한 발 딛는 묵조선객에게 이르니 룸비니 동산에 피었던 무우수 꽃은 그대로 아름답네.

성불의 진리는 주어진 행복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우러러 받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며 서로서로를 보듬고 살아갑시다. 이렇듯 성불의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큰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의미 되새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이 기쁜 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각자 서원을 세워 성불하는 계기를 바랍니다. 법당 안의 불상이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런 마음의 실체는 공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내는 마음에는 그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깨우쳤다고 얘기하고 견성성불 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오신날 큰 서원으로 당장 자신의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단박에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성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깨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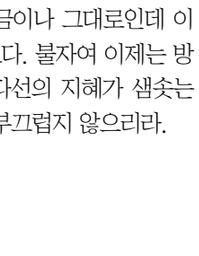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이것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생(生)한 바가 있으면 멸(滅)할 바가 있고 생한 바가 없으면 멸할 바도 없고, 유(有)와 무(無)를 함께 없애 버리면 바람이 수면(水面)으로 지나가도다.

좋은 날 등불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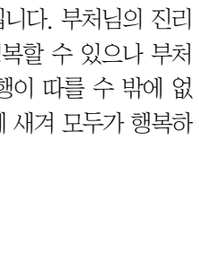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어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붓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가 불성을 깨쳐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밝고 선량하여 미묘한 신령의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개발하여 되찾는다면 붓다가 된다는 이 거룩한 교훈을 다시 한 번 경각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날 우리 모두는 등불을 밝히고 나와 이웃 나아가 세상 모두가 부처님 광명과 가호가 충만하기를 다함께 기원합시다.

하염없는 진리 누구나 배운다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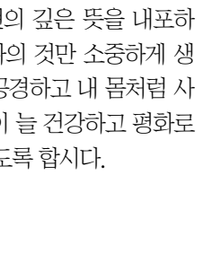


釋迦如來無說說 석가여래무설설
一切衆生不問問 일체중생불문문
各各學無爲 각각학무위
心空及第歸 심공급제귀

석가여래께서 말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체중생은 들음 없이 들으시네
제각각 하염없는 진리를 배우나니 마음을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대 해탈의 삶을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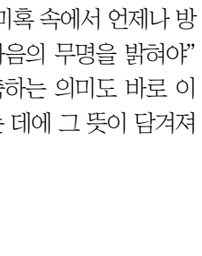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장 성철 스님



우리가 생사가 없는 확고한 금강 같은 지혜를 터득할 때 삶과 죽음의 생사를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추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인식 자체는 모두다 몽중생사이며 참 진리에는 태어남도 없고 또한 본래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상은 영원하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라는 대명제를 깨쳐 본무생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형식과 가장으로 삶 찾지마라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나는(我) 괴로움(苦諦), 괴로움의 집기(苦集), 괴로움의 멸함(苦滅)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苦出要諦)을 기(記)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뜻에 맞고 법에 맞으며 범행의 첫 머리며 그것은 무욕, 무위, 적멸, 지식, 정각, 사문, 열반이기 때문에 기(記)하는 것이다. 즉, 글이며 문자일 뿐이니 부처님의 탄신은 나의 마음으로 기쁨이 나의 덕(德)이니라. 형식이나 가장으로 삶을 찾지마라.

정법에 집중하라

세계승가회장 수완나 스님

喜法臥安이요 心悅意淸이라
不說讚嘆이요 眞覺心讚이라

가르침의 감로수 마시는 님. 맑고 고요해 편히 잠을 자노니 거룩하신 부처님! 입으로만 찬탄 말고, 진공묘유 깨달아 가슴으로 찬탄하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이를 깨닫고 꿰뚫는 이, 한없이 부족하도다. 불자여 이제는 방편에 속지 말고 정법에 집중하라. 붓다선의 지혜가 샘솟는 수행은 자타를 성불케 하리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리라.

자신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 지금의 나를 반성하고 이 어두운 중생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주인공이 스스로 되어야 합니다. 화합과 단결하는 곳에서 밝은 법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복덕이 따르고 행복할 수 있으나 부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극락정토 실현 노력해야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2561년 전 4월 초 8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설파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탄생계는 모든 생명이 비로불 전신체로 다 같이 존귀하니 상호 존중과 배려로 다툼과 고통이 없는 세상 즉 정토구현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만 주장하고 나의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상대를 공경하고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회와 마음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워 이 땅위에 세상 극락정토가 실현되도록 합시다.

마음의 무명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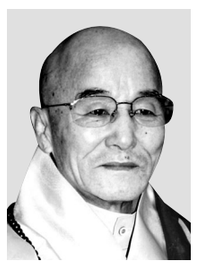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회장 무산 스님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겨 보는 일이다. 즉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 라는 허구를 자각하고 대자유인이되는" 것이다. "나는 집착과 미혹 속에서 언제나 방황하고 상처 입은 어리석음을 벗고 마음의 무명을 밝혀야" 한다. 오늘 우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재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수행하고 나누며 사회에 회향합시다

대천세계 밝게 비추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장 송산 스님



世尊坐道場 세존좌도량
淸淨大光明 청정대광명
比如千日出 비여천일출
照耀大千界 조요대천계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 광명을 놓으시네
비고 하건데 천개의 해가 뜨는 것 같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네

천진한 내 성품 찾아라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삼계도사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신데, 과거여래, 현재성현, 미래 학인들, 번뇌 망상 끊어내고, 무변법신 이루우고, 천진 면목 내 성품을 분명하게 증득하네. 부처님오신날 오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여히 빛나고 있는 천진한 내 성품을 찾아 합니다. 한결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도록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은 깨우기 나름입니다. 허물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개선을 생각해야합니다. 항상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탄신을 봉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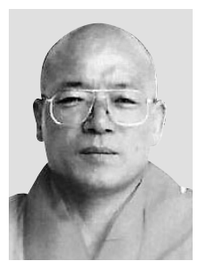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한 인간적으로는 인권선언이며 인류에는 평등선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억겁으로 쌓인 무명과 번뇌를 벗어나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인생고를 여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롭고 안온한 인생의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었기에 환희로운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향기 지구촌에 널리 퍼져 고통 받고 폭정에 시달리는 가까우면서도 머나먼 저 북쪽에도 모두 말고 밝은 삶이 되소서.

염불공덕으로 만 중생 해탈을

(사)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스님



無禪有淨土 무선유정토
萬修萬人去 만수만인거
但得見彌陀 단득견미타
何愁不開悟 하수부개오

참선수행은 부족 하더라도 쉬지 않는 염불공덕이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극락 가서 오로지 아미타불을 꼭 만나게 되나니 깨닫지 못할까 근심할 것 무엇이랴. 부처님오신날 인연에 우리 모두 쉬지 않는 일념 염불공덕으로 모두 해탈 이루어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뜻 깊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고 낮음 없음을 새기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스님



百川入海同一咸味(백천입해동일함미) 四姓出家 同一釋氏(사성일가동일석씨)

백방에서 흐르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짠 맛이 나고, 네 종족이 출가하여 불제자가 되면 동일하게 석씨가 된다. 우리는 일불제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여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불이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합장 축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어지럽지 않은 마음 길러야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무엇이 禪定(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습을 떠나는 것이 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定이니 밖의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모습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으리라. 본 성품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고요한 것인데 다만 경계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진 것이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참된 정)이 될 것이다.

마음의 등불 하나씩 밝히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心淨卽國土淨 心平卽國土平(심정즉국토정 심평즉국토평) 邪正由心 淨穢在我(사정유심 정예재아) "마음이 맑은 즉 국토가 맑을 것이요, 마음이 평안한 즉 국토가 평안할 것이니, 삿되고 바름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음이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모두 내 속에 있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부처님의 나라요 중생의 나라이니 마음의 등불을 저마다 맑고 아름답게 밝혀서 대한민국을 불국정토로 만듭시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발심하여 기도하고 정진하여 대각을 이룹시다.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서호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우려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치려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정유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자비심 기르는 한 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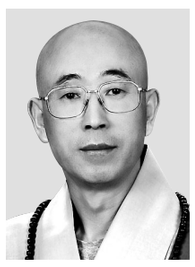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오늘은 생사가 반복하는 윤회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탈을 완성한 부처님께서 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을 거울삼아 부단히 지혜를 길러 억겁을 익혀온 악습의 무명, 번뇌를 녹여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나를 부처님세계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스러운 자비심 올해 더욱 키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불자님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 따라 조화로운 삶을

원융교단 (사)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부처님을 맞이하는 봉축일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소망을 담고 각오를 담아 다가오는 인연세상의 희망을 일구고 소망을 실현시키고자 다짐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一切法은 衆緣所集이요 共所作故니 無有一緣所生故라. 즉,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더불어 생겨나는 법이라서 한 가지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는 모든 환경의 인연 조건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르침에 귀의하여 고통 없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된 삶 위해 나누고 기도하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시 대자대비 원력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항상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꿈같은 것이요, 이러한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큰 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밖에서 나를 찾다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위해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합시다.

나라 위한 봉축평화 기도발원

(종)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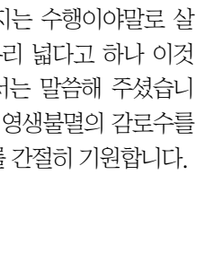


大韓國隆昌 民生安寧願
有一切功德 慈眼施衆生
福聚海無量 是故應頂禮

대한민국 융창과 국민의 생활 안녕을 발원합니다. 일체의 큰 공덕을 갖추시고,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보시니. 우리에게 줄 복덕이 바다 같아, 하심하고 머리숙여 절합니다. 내 아미타불을 찾아 깊이 믿지 않는다면, 눈 밝은 스승을 옆에 두고도 그 도력을 알 수 없으며, 만나도 지나치고 말듯이, 헛수고만 하는 법이라. 불자는 진실하고 참되게 믿어야 만이 복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음자리 알아 자유인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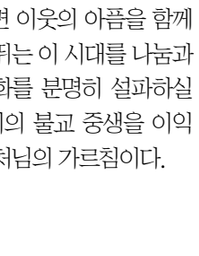
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스님



부처님께서는 자유와 평등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정진함으로써 사바세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은 팔만대장경으로 설하셔 놓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이끄는 마음을 알려 주시고 그 마음자리를 안다면 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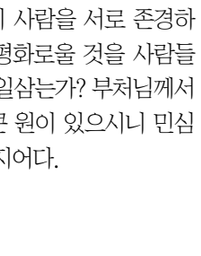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만원 스님



정유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의 잘못이 티끌만 치도 없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대비심으로 살피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참회하는 참 마음으로 사는 불자가 됩시다.

자성으로 발원해 희망의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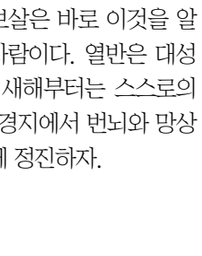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석가모니부처님은 거룩하신 빛으로 온 법계에 나투시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에도 널리 비추시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성스러운 부처님의 광명을 인연 있는 사람이거나 인연이 없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골고루 전하여서 세세생생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시다. 부처님의 찬란한 진리 광명으로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로써 씻어주고 더럽혀진 인간의 심성을 바로 잡아 참된 삶을 이을 수 있도록 지성으로 발원하여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갑시다.

복과 지혜 가득한 세상되길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길이길이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 일이 다 풍요로워 지기를 부처님전에 기원 하옵니다.

항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항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부처님이 제자 일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야말로 살아 있는 수행입니다. 생사고해가 아무리 넓다고 하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국토 발원이 이루어져서 영생불멸의 감로수를 맛보고 환희에 젖는 초파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생 이롭게 불교 현대화를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 회장 각성 스님

부처님이 오신 참뜻은 삼라만상에 대한 무한 자비의 실천이다.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존중의 사자후, 인간의 자유와 평등, 평화의 구현 그것이 곧 부처님의 크나큰 미소였다. 부처님이 오늘에 계신다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폭력과 살상, 망어와 사건이 날뛰는 이 시대를 나눔과 자비와 화합으로 이끄는 현대의 불교화를 분명히 설파하실 것이다. 즉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대비의 불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나투신 뜻 새기자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아! 말세로다 사탄의 세상이로다
偉哉 佛敎 每尊人
中道 人和 四海親
左右 人心 殺投爭
現佛 濟衆 平天下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경하면 치우침 없는 인화로써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을 사람들은 어찌하여 좌우로 갈라져 투쟁만을 일삼는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큰 뜻은 중생구제에 큰 원이 있으시니 민심은 마땅히 인화로써 천하를 태평케 할지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진을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의 진리는 자신에 의한 성불이요,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열반은 대성도(大成道)며 성도는 해탈인 것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여 해탈의 경지에서 번뇌와 망상과 죄업을 떨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정진하자.